

# 장흥, 청년 정착·미래농업 기반 구축 탄력

**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200억 규모  
생산·유통·에너지 통합 첨단농업단지 등 구축 목표**

장흥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돋고 지역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진한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장흥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마트농업 산업 생태계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군은 총 25ha 규모 중 20ha 스마트팜 단지와 5ha의 유통시설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한 214억원 규모의 공

공부문 예산과 더불어 800억원의 민간투자를 연

계해 생산·유통·에너지가 하나로 통합된 첨단농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대덕읍·회진면 일원을 중심으로 한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과 연계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전략작목 생

산기반 확충, 청년농업인 임대 온실 제공 등 실

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모 후속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해 2026년 초 예정된 현장평가와 국비 확보 절차에 본격 대응 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은 장흥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청년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첨단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다”고 밝혔다.

이어 “장흥군은 앞으로 생산에서 유통, 에너지까지 연결되는 통합형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며, 특히 민간투자와 연계한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함평자연생태공원서 ‘한란’ 개화  
야생식물 1급…겨울 꽃 피는 난초

함평자연생태공원에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 ‘한란’이 초겨울 꽃을 푸우며 은은한 향기와 함께 겨울 정취를 더하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한란은 이름처럼 겨울에 꽃을 피우는 희귀 난초로,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향기가 특징이다. 겨울에 펴 더욱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자연의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생태공원 내 동양란관에는 제주한란, 일본한란 등 다양한 동양란도 함께 전시돼 있어 한란의 자태와 향기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난을 주제로 꾸며진 전시 공간은 한국적 미와 자연 정취가 어우러져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 겨울철에도 가족과 함께 찾기 좋은 풍란관, 아열대전시관, 수생식물관, 자생란관 등이 운영되고 있어 따뜻한 실내 공간에서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는 겨울 나들이 장소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한란은 우리나라가 간직한 소중한 멸종위기 식물로, 자연생태공원에서 그 아름다움을 안전하게 보전·전시하고 있다”며 “을겨울 자연 속에서 특별한 휴식과 감동을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에 태양광 설비  
한국동서발전, 에너지 1004 프로젝트

한국동서발전이 ‘EWP 에너지 100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에 2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한다.

‘EWP 에너지 1004 프로젝트’란 결을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한국동서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은 전력 사용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조상래 군수는 “이번 한국동서발전의 태양광 설비 지원은 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며 “앞으로 추진될 앙수발전소라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한국동서발전과의 다년간 협력과 노력의 결실로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곡성군이 1조6000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신규 양수발전소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는 폐거를 이룬 바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순천 ‘2025년 창업페스티벌’ 성료  
AI 실습·전문가 컨설팅…창업 도움

순천시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2025년 순천창업페스티벌’을 개최, 예비창업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창업 전략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장이 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실전 창업전략을 공유하는 강연과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지역 기반 창업가들의 강연에서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성과를 이룬 창업가들이 창업 계기부터 성장과정, 향후계획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은 AI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의 부담을 덜고 매우 유익했다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실습 후에는 정부지원사업과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나주시, 선제적 AI 방역 강화 나주시는 최근 영암군 시종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AI(H5) 황원이 확인됨에 따라 관내 가금류 밀집 지역과 관련 농가를 중심으로 총력 방역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반경 10km 이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으며 발생 위험 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예정 농가 1대1 맞춤형 특별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등 감염원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성구 나주시 부시장이 등수동 거점 소독시설과 공산면 양계단지 통제초소,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을 직접 방문해 소독시설 가동 상황, 차량통제 현황, 농기 방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 김영민 강산농원 대표, 보성 첫 ‘식품명인’ 탄생

**농식품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7호’…도라지 식초 제조**

보성군 최초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탄생했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결과, 강산농원 김영민 대표가 식품명인 제97호로 선정됐다.

김영민 대표는 보성군 최초의 식품명인이다.

식품명인 제도는 1994년부터 우리 고유 식품의 보존·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 심사는 시·도에서 추천된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역사적 사실, 기능 보유의 입증 및 계승 경위, 보존·보호 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전문가 협장 조사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최종 심의를 통해 총 7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식품명인에게는 보유기능 기록화,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 컨설팅·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영민 명인은 3대에 걸쳐 전승된 가문의 ‘도라

지초’ 제조법을 계승해 1992년 보성에 정착, 강

산농원을 설립한 이후 30여 년간 발효식품 연구와 전통 기술 현대화에 매진해 왔다.

김 명인이 보유한 도라지식초 제조법은 박해동 고, 임원심육지 등 고문현 속 전통 발효식초 제조 법과 일치하며,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제조 과정 역시 문헌을 통해 확인돼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술로 인정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는 보유기능 기록화,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 컨설팅·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영민 명인은 3대에 걸쳐 전승된 가문의 ‘도라

지초’ 제조법을 계승해 1992년 보성에 정착, 강

산농원을 설립한 이후 30여 년간 발효식품 연구와 전통 기술 현대화에 매진해 왔다.

김 명인이 보유한 도라지식초 제조법은 박해동 고, 임원심육지 등 고문현 속 전통 발효식초 제조 법과 일치하며,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제조 과정 역시 문헌을 통해 확인돼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술로 인정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는 보유기능 기록화,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 컨설팅·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영민 명인은 3대에 걸쳐 전승된 가문의 ‘도라

지초’ 제조법을 계승해 1992년 보성에 정착, 강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7호 지정자 김영민 대표가 승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광양 ‘AI 교육’으로 시민 역량 강화…재직자 참여 확대

광양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AI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커뮤니티센터 2층에서 순천대학교 디지털+X 산업기술센터와 함께 진행한 ‘업무에 바로 쓰는 AI 속풀 콘텐츠’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AI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전남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비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X 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1·2차년도에는 대학생과 재직자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3차년도인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교육 대상을 시민으로 확대해 AI 저변 확대에 더욱 힘을 실었다. 교육은 지난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총 7회차로 진행됐으며, 총 248명이 수료했다.

이 중 광양시민은 171명으로 시민 참여율이 특히 높았다.

교육 과정은 △1회차 ‘챗GPT 하나로 실무 자동화 A to Z’ △2회차 ‘AI 마케팅 콘텐츠 제작 실무 미스터’ △3회차 ‘실무에 바로 쓰는 프롬프트 설계 전략’ △4회차 ‘실무자가 바로 쓰는 챗GPT 활용



법’ △5회차 ‘AI로 만드는 나만의 AI 속풀 콘텐츠’ △6회차 ‘누구나 쉽게 쓰는 생성형 AI 활용법’ △7회차 ‘업무에 바로 쓰는 AI 속풀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 과정은 중복 없는 독립형 커리큘럼으로 설계돼 다양한 수준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요일 운영을 통해 재직자의 참여율도 크게 높였다. 또 광양커뮤니티센터 2층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장을 주로 활용해 시민의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도 강화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AI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단기교육을 넘어 연속·심화형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귀진 기자

고흥군은 지난 9일 500여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축하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축하 공연은 총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흥읍 호천길 245에 조성됐으며, 봉안당 1만 6208기, 자연장지 2209기 등 총 1만 817기의 안치 규모를 갖추고,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 시설도 마련됐다.

이번 조성으로 그동안 군민들이 먼 타지의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향에서 풍물 있게 고인을 예우하며 모실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허늘공원은 애의 중정과 쉼터, 야간 경관 조명 등을 갖춰 낮에는 탁 트인 전망을, 밤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차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방문객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준공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온 추진 과정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 간이 됐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고흥군은 지난 9일 500여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축하 공연을 개최했다.